

■ 주요 뉴스: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

- 미국 재무장관,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
-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신뢰지수, 전월비 상승. 본격적인 반등은 기대난
- 호주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5%p 인상.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물가상승 둔화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1.0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7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에너지 및 기술 관련주 등이 상승세 견인
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둔화 우려, 소매 관련주 약세 등으로 0.3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이 반영
유로화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5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시각이 배경
독일은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3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4.7원, -3.1원) 0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6/7일	6/6일	전일대비			6/7일	6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60.7	4,121.4	0.95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7%	3.04%	-7bp
	유럽	442.88	444.12	-0.28%		독일	1.29%	1.32%	-3bp
	중국	3,241.8	3,236.4	0.17%	CDS 5y	한국	43bp	44bp	-1bp
	일본	27,944	27,916	0.10%		중국	69bp	69bp	0bp
	한국	2,626.3	휴장	-1.66%	위험 지표	EMBI+	-	375	-
환율	달러지수	102.34	102.44	-0.09%		VIX	24.02	25.07	-4.19%
	유로화	1.0703	1.0696	0.07%		WTI유	119.41	118.50	0.77%
	엔화	132.59	131.88	-0.54%	원자재	구리	443.6	443.5	0.01%
	위안화	6.6705	6.6539	-0.25%		금	1,852.4	1,841.4	0.59%
	원화	1,257.7	휴장	-1.1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세계은행,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.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

- 금년 및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1월에 발표한 전망 대비 하향(각각 4.1%→2.9%, 3.2% →3.0%). 세계경제는 향후 수년 동안 1970년대와 같은 저성장 고물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, 특히 중저소득 국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
- 지역별로는 미국(3.8%→2.6%, 2.3%→2.2%), 유로존(3.7%→2.5%, 2.6%→2.4%), 일본(2.9%→1.7%, 1.4%→1.3%) 중국(5.1%→4.3%, 5.3%→5.2%) 등 대부분의 주요국 전망을 하향. 다만 인도(8.7%→7.5%, 6.8%→7.1%)는 내년 전망을 상향
- 맬패스 총재는 러·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급등, 공급 차질, 주요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등이 글로벌 경제의 고물가 저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.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
- 한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과도한 부채, 통화가치 하락,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 등으로 1980년대 초와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. 중국이 주요 채권국이며, 이와 관련된 채무조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
- 저성장,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확대, 무역제한 조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. 또한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,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필요

- 에너지 및 식품가격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. 그렇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하면, 공공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

■ 미국 재무장관,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

- 옐런 장관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. 이에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. 또한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지출 관련 규정은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

■ 미국 4월 무역수지, 적자 규모가 큰 폭 감소. 수출 호조 등에 기인

- 해당 적자는 871억달러로 전월(-1077억달러) 대비 19.1% 줄었으며, 적자 감소 규모는 9년 만에 최저. 가스, 주요 금속 등의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, 이는 2/4분기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더할 전망

■ 미국 재무부, 국내 투자자의 러시아 채권 매입을 금지

-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(OFAC) 관계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러시아 채권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발표.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 채권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

■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신뢰지수, 전월비 상승. 본격적인 반등은 기대난

- 해당 지수는 -15.8을 기록하여 전월(-22.6) 및 예상치(-20.0) 상회. Sentix는 고물가 혹은 공급차질 등의 문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. 다만 아직 경기하락의 최종 국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

■ 독일 4월 공장수주, 전년동월비 2.7% 감소. 3개월 연속 역성장

- 해당 수주는 전월(-4.2%) 대비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예상치(0.3%) 하회. 이번 결과는 수요 부족과 러-우 전쟁 등에 따른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등에 기인

■ 일본은행 총재, 가계의 고물가 수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

- 구로다 총재는 관련 발언이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 설명. 전일 구로다 총재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수의 정치인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. 코이치 하기우다 무역장관은 구로다 총재의 의견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

■ 호주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5%p 인상.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

- 정책금리를 0.5%p 높여 0.85%로 결정.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.25~0.40%p 인상을 크게 넘어선 결과. 필립 로우 총재는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한다면 정책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주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도매재고, 독일 4월 산업생산, 유로존 1/4분기 성장률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달러화 강세, 여타 국가의 통화긴축 시작 등으로 둔화 - WSJ

(The U.S. Dollar Is Looking a Bit Stretched)

- 달러화 가치는 연준의 긴축기조 등으로 연초 이후 7.1% 상승. 그러나 최근 달러화 가치가 5월 정점에서 2% 하락하는 등 강세 둔화 움직임이 발생.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 발신에 기인
- 무엇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 문제로 작용하면서,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들이 통화긴축을 시작했고,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 강세로 연결. 다만 미국 경제성장 및 연준의 매파적 통화기조 유지 시 달러화 강세는 지속 예상

■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, 새로운 투자 동력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EU's strategic autonomy requires new investment momentum)

- EU가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적인 생산기지 회귀와 공급의 다양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. 이는 성장복원력, 친환경,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구한다는 공통 인식에서 비롯. 다만 투자 규모 등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은 편
- 이에 충분한 민간자본이 활용될 수 있다면, 유럽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 동시에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 축소를 유도할 전망. 이와 관련하여 장기 자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도 병행하는 것이 적절

■ 미국 고수익채권, 짧아지는 경기주기 등으로 채무불이행 급증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There will be blood)

■ ECB, 역내 고물가 고려 시 통화공급 축소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EU is on the back foot in inflation fight)

■ 고물가 장기화, 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 - 블룸버그

(Even a Soft Landing Can Be Ugly for Investor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